

국토교통부,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 개최

- 12~13일 아트페스티벌... 야구클리닉 등 가을맞이 어린이 행사 풍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용산 주한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“Joyful! Colorful!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”을 개최한다.
- 이번 행사는 가을철 어린이정원을 대표하는 행사로서, 작년 가을에 열린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.
 -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는 제2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정원 풍경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고,
 -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물감놀이, 바닥분필 그리기, 종이집 꾸미기 등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발달장애 작가 전시회,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.
- 같은 시각,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유소년 프로야구 클리닉 행사가 진행됐다.
 -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정원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클리닉 행사에는 부산·경남지역, 광주·전남지역 유소년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-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를 둘러본 후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“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예술 체험 프로그램, 체육 활동을 즐기며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고,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4. 10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 1

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 포스터 ※ 별도송부